11강 복수, 혹은 노예들의 반란

(1교시)

■ 25년에서 26년 사이의 루쉰

※ 학습목표
루쉰의 집필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 1925년에서 1926년 사이의 루쉰

1925년에서 1926년 사이 루쉰은 그의 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두 번째 소설집인 『방황』에 수록될 대부분의 소설을 이 시기에 썼고, 『신청년』에 연재했던 잡감들을 묶어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으며, 또 다른 잡문집 『화개집』을 출판했고 『화개집속편』에 들어갈 대부분의 글을 썼다. 『고사신편』에 수록될 『미간척의 복수』와 『달로 달아난 항아』를 썼고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를 썼다.

"1926년 가을 혼자 시아먼(廈門)의 석옥(石屋)에 살면서 대해(大海)를 마주하고, 고서(古書)를 뒤적이니, 사방에는 인기척이 없고 마음은 텅텅 비어 있었다."(『서언』)

"나는 혁명 이전에는 내가 노예였다고 생각했었는데, 혁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내가 노예에게 속아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느껴진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중화민국의 국민이자 중화민국의 원수라고 느껴진다.(『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 『납함』의 용속함

『하늘을 보수한 이야기』는 루쉰의 첫 번째 소설집 『납함』에 들어가 있는 소설이다. 그때 세간의 평이 나왔는데 한 평론가는 『하늘을 보수한 이야기』를 제외한 소설들은 모두 용속하다고 평했다. 용속하다는 것은 상투적이고 대중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루쉰은 그 작품을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써나간 것이었고 용속하다는 것이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딱히 훌륭한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 고사신편 읽기의 어려움

『고사신편』에 실려 있는 글들은 모두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의 신화나 전설 등을 모티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사신편』은 읽기에 편안하지 않다. 루쉰은 한 문장도 허투로 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호사가들처럼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고전을 인용하거나 하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고사신편』 속엔 무수히 많은 상징과 비유와 트릭이 숨어 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이런 염려가 우리의 독해를 방해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1강 복수, 혹은 노예들의 반란

(2교시)

■ 루쉰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의 복수

※ 학습목표
『하늘을 보수한 이야기』와 『달로 달아난 항아』를 이해한다

▲ 『하늘을 보수한 이야기』
루쉰의 소설을 읽는 한 가지 손쉬운 방법은 몇 몇 작품들을 '복수'의 테마 속에서 읽어내는 것이다. '노예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루쉰의 자각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복수는 무엇보다도 노예들에 대한 복수에 바쳐질 것이다. 『하늘을 보수한 이야기』의 경우 그것을 우리는 '작은 인간'의 역사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버린 인간.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인 것이다.
루쉰은 서언에서 프로이트의 인류의 탄생과 경과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 해 두고 인간들의 역사를 쓰고 싶었다고 밝힌다. 그런데 루쉰은 이런 식의 서술이 흥미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익살을 가미하기 시작한다. 루쉰의 익살스러움은 단순하게 묘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예술이라는 거창함을 익살스러운 방식으로 비틀어버리는 것. 루쉰은 이런 식으로 대중과 분리되어 고상한 척 하는 비평가와 예술가를 비꼬기도 한다.

▲ 『달로 달아난 항아』
『달로 달아난 항아』는 적어도 세 편의 작품과 연관되어 있다. 『복을 비는 제사』와 『죽음을 슬퍼하며』 그리고 『노라는 집을 나간 후 어떻게 되었나』. 샹린댁은 스스로 구습의 노예가 되어 희생되었고, 쯔쥔은 사랑을 잃고 상심한 채 죽었지만 항아는 당당하게 처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다가 당당하게 집을 나간다. 현실 속에서 집나간 노라는 타락하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신화와 현실이 뒤섞인 세계 속에서는 더 좋은 세상으로 비상할 수도 있는 법. 샹린댁의 비극, 쯔쥔의 원망을 대신 품고 항아는 가볍게 달로 날아오른다.
또한 지엔성의 경우 쯔쥔이 죽고 난 후 절망에 빠져 자기변명을 하는 반면, 항아의 남편은 활로 달을 쏴서 달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다음 날 항아를 찾기 위해 밥을 열심히 먹기도 한다. 항아와 항아의 남편은 운명에 단순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싸울 줄 아는 이들이다. 자연과 완전히 분리되어 타락해버린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반쯤은 신화적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항아의 가출은 어쩌면 쯔쥔이나 샹린댁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닐까.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